

호주, 와인산업 동향과 전망

최근 들어 여가, 웰빙, 건강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와인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와인은 대부분이 수입산으로 앞으로도 소비량의 증가와 함께 계속 수입물량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호주 와인산업 동향을 소개한다.

1. 2004년 와인용 포도산업 현황

2003/04년 호주의 와인용 포도 생산량은 가뭄이 심했던 2002/03년보다 34%, 2001/02년의 160만톤보다 18% 증가한 190만톤에 달하였다. 이러한 생산증가의 주요 원인으로서는 평균 생산량의 증가와 재배면적의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2003/04년 신규 재배면적은 6% 정도 감소한 5,800ha 수준이었다. 고품질의 백포도주용 품종이 계속해서 전체 신규 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고품질의 백포도주용 포도의 가격은 2003/04년에 약간 상승한 반면, 고품질 적포도주용 포도의 가격은 계속해서 하락하였다.

2003/04년 호주산 와인의 판매는 국내판매로 4억 1,700만리터, 수출로 5억 8,100만리터를 판매해 거의 1조리터에 달하였다. 호주의 와인용 포도의 급격한 생산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내판매의 증가율은 4% 수준에 머물고 있다. 2003/04년 물량기준으로 수출판매율은 전년대비 14% 정도 증가하였으나, 수출 단위당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리터당 4.4달러(호주) 수준에 그쳤다.

2003/04년의 총 생산량의 43%가 수출되는 등, 와인수출은 호주의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는 실정이다.

2. 와인의 국제수요 현황

와인의 국제시장은 고품질 와인을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2004년에 양적 기준으로 2%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도매시장의 성장과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캘리포니아산과 호주산 와인에 대한 수요증가로 모든 주요 시장에서 판매율이 증가하고 있다. 2004년 동안, 소득증가, 생활방식의 변화, 건강을 중요시하는 소비형태 등으로 인해 고품질 와인에 대한 수요는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에 전통적인 와인생산지인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의 유럽지역을 중심으로 저품질 와인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04년 호주산 와인은 주요 수출시장인 영국, 미국, 독일에서 각각 7%, 5%, 2%의 성장을 기록하였다. 국제수요의 대부분이 이들 국가들에 의해 이뤄지므로 이들 시장에 대한 보다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다.

2.1 영국

영국은 국내 와인산업 규모가 작아 국내소비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일인당 소비량은 크게 증가하여 연간 24리터로 호주를 비롯한 와인 생산국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수출시장으로 인식되고 있다. 영국의 와인시장은 군소 소매상들의 합병으로 인해 소매판매점의 중요성이 증가하였고, 생활패턴의 변화, 외식의 증가, 여성들의 음주율 증가 등이 전체적인 와인 판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소매상들의 합병으로 10개의 대형 소매상들이 전체 (점내 음주비허가)주류 판매의 80%를 담당하고 있으며, 영국내 와인판매의 80%를 이들 (점내 음주비허가)소매상들이 담당하고 있다.

호주 역시 이러한 영국내 판매추세에 맞춰 소매판매 비중을 증가시켜 나가고 있다. 영국에서 판매되는 상위 10개의 와인브랜드 가운데 6개가 호주산 와인이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 칠레, 그리고 남아프리카산 와인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어서 그 경쟁은 날로 치열해 지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영국 시장에서의 현재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점내 음주허용) 판매의 증가가 필요하다. 현재 (점내 음주허용) 판매가 물량기준으로 (점내 음주비허용) 판매보다 10% 가량 높고,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통적으로 유럽산 와인들이 (점내 음주허용) 판매의 대부분을 차지하여 왔으나, 호주산 와인을 위시한 비유럽산 와인들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03년 물량기준으로 프랑스와 호주산 와인이 (점내 음주허용) 판매량의 42%와 13%를 차지하였으나, 2004년에는 프랑스산 와인의 점유율이 34%로 하락한 반면에 호주산 와인의 비중은 17%로 증가하였다.

2.2 미 국

전통적으로 미국의 주류시장은 일인당 연간 소비량이 82리터에 달하는 맥주가 대부분을 차지하여 왔으나, 최근 들어 1인당 와인 소비량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고가의 고품질 와인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장기적으로 와인을 특별한 의미의 주류가 아닌 맥주와 같은 일반적인 주류로 인식하는 선호의 변화가 예상된다.

미국내 수입 와인에 대한 소비는 꾸준히 증가하여 1999년부터 2004년 사이에 미국의 와인수입은 50%나 증가하였다. 반면에 자국산 와인의 소비는 동기간에 5%의 증가를 기록하는데 그쳤다. 세계 최대 소매·주류업체인 Allied-Domecq는 중장기적으로 미국내 와인소비의 35%가 수입와인이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며, 이는 지난 십년동안의 수입와인 소비량보다 25% 가량 증가한 양이다.

2.3 독일

독일은 수입와인이 자국내 와인 소비의 72%나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와인 수입국이다. 영국, 미국과 마찬가지로 전체 판매의 65% 가량을 주류 할인점이나 대형유통업체가 담당하고 있다. 수입와인의 80% 가량이 이러한 유통단계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이들 중 절반이상이 병당 2.90유로에 판매되고 있다.

2.4 아시아

아시아 시장은 와인 수출국들에게 무한한 가능성의 시장이다. 특히, 중국과 일본 시장의 경우 현재는 일인당 소비량이 매우 낮으나 소비증가의 가능성이 매우 크며 가처분 소득의 증가 등으로 그 성장잠재력이 매우 높다.

2004년 중국의 와인 판매량은 연간 1억 8,000만 리터로 그 중 75%가량이 국내산이다. 현재 중국 와인시장은 많은 규제로 인해 수입산 와인의 점유율이 매우 낮으나, 2001년 중국의 WTO 가입으로 수입산 와인에 대한 관세율이 인하되고, 추가적인 외국자본의 직접 투자에 대한 완화 조치로 인해 중국 시장으로의 진입이 증가할 전망이다.

2.5 한국

중국과는 달리 한국에서 판매되는 와인(약 1,400만리터)의 67%가 수입산 포도주이다. 향후 5년동안 한국의 와인소비는 연간 평균 11%씩 증가할 전망으로 이들 대부분은 수입산으로 충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신흥 아시아 시장과 마찬가지로 한국은 상대적으로 높은 일인당 소득수준을 바탕으로 4,800만에 이르는 높은 인구수를 가진 시장이다. 서구 문화에 익숙한 젊은 소비층을 중심으로 와인 소비가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한국은 잘 정비된 유통망이 형성되어 있어, 대형 슈퍼마켓은 소매 판

매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한국 와인시장에 최초로 진출한 국가중에 하나인 프랑스는 여전히 가장 큰 수출국이다. 2003년 한국의 와인 수입물량의 40%가 프랑스산이었다. 동기간에 호주는 미국, 이탈리아, 칠레의 뒤를 이어 다섯 번째 수출국이었으며 그 물량은 총 수입량의 6% 수준이었다.

2003/04년에는 호주산 와인의 수출은 67% 증가하였다. 이 가운데 병으로 수출되는 물량은 75% 정도로, 이 가운데 적포도주가 77%를 차지한다. 병에 담긴 적포도주의 판매는 급격히 증가하여 2003/04년에 131% 증가한 285,000리터에 달했다. 건백포도주는 총 수출물량의 27%를 차지하는데 병과 통에 담겨 수출되는 비중은 거의 비슷하다. 병에 담긴 건백포도주 또한 약 60% 증가하여 178,000리터에 달하였다.

3. 국제 와인시장의 중장기 전망

고품질 와인에 대한 국제 수요는 일인당 소비의 증가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전통적인 와인 소비국인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의 일인당 소비량은 현재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독일은 최근의 경제상황의 여파로 단기적으로는 와인 소비가 감소할 전망이나 신흥 와인 수출국의 시장 점유율은 적포도주를 중심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장기적으로 미국의 와인 소비 증가율은 29% 수준으로 전망되어 가장 빠른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성장은 고가의 고품질 와인에 대한 수요 증가의 가능성과 소비자들의 선호 변화에 기인한다. 미국에 이어 영국의 소비 증가율이 16% 수준으로 전망된다.

최근 들어 급속히 와인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는 아일랜드, 스웨덴, 러시

아 등을 중심으로 한 유럽 국가들의 소비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아시아 국가들의 수요는 장기적으로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여기에는 전통적인 소비자들의 선호 변화와 소득 증가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와인의 국제공급 현황

지난 십년 동안 비유럽국가(new world)들의 경제성장과 고품질 와인에 대한 지속적인 소비 증가로 미국, 칠레, 남아프리카, 아르헨티나, 뉴질랜드, 호주 등지에서 와인 제조용 포도 재배가 크게 늘어났다. 반면 동기간에 유럽연합 지역내 와인용 포도 재배면적은 상대적으로 크게 변화가 없어 약 300만ha 수준을 유지하였다.

표 1 와인용 포도 재배면적

	1985 천ha	1995 천ha	2000 천ha	2004 천ha	증감률 1985-2004 %
전통적 생산국					
프랑스	1,063	927	917	847	△20
이탈리아	1,103	927	908	837	△24
스페인	1,593	1,196	1,174	1,149	△28
신흥 생산국					
호주	64	73	140	164	157
뉴질랜드	6	8	12	18	202
칠레	106	54	104	111	5
미국	334	305	413	382	14
아르헨티나	295	210	209	202	△32
남아프리카	110	103	117	126	15

자료: ABARE

2004년 세계 와인생산량은 287억리터에 달하여 전년대비 10% 증가하였다. 그 결과 57억리터의 초과공급량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어 막대한 재고량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년간 국제 와인제조용 포도의 초과공급으로 막대한 재고량이 발생하여 포도가격의 하락을 초래했다. 그 결과 포도재배면적은 점차 감소하여 2004년에 비유럽권 국가들의 재배면적은 약 1% 상승에 그친 실정이다. 재배면적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비유럽권 국가들의 와인생산은 증가하여 6% 증가한 68억리터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비유럽국가들 가운데 아르헨티나, 호주, 뉴질랜드의 생산이 증가한 반면, 미국과 칠레는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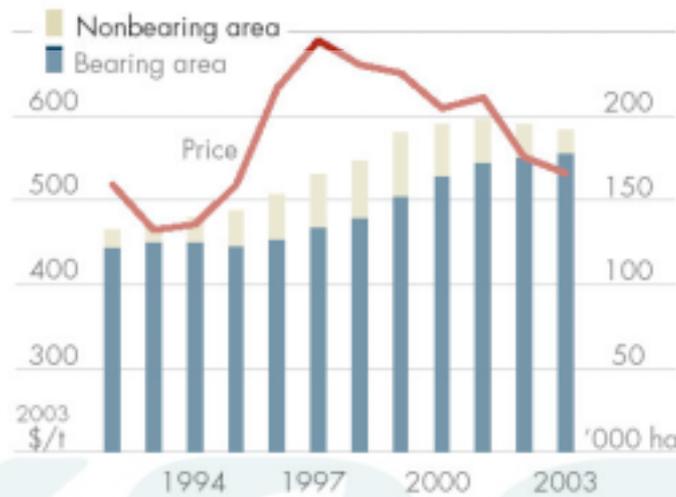
그림 1 세계 와인용 포도 생산 현황



자료: ABARE

2004년에 미국산 와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캘리포니아 지역의 생산량은 백포도주 제조용 포도의 생산량 감소로 인해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공급량의 감소 결과 와인제조용 포도가격은 상승하였다. 한편, 미국내 와인용 포도의 60%를 적포도가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림 2 캘리포니아 와인용 포도 재배면적과 가격 변동 추이



자료: ABARE

칠레는 지난 5년간 재배면적을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왔으며 적포도가 전체 면적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고품종의 재배면적이 점차적으로 확대해가고 있으며 생산과 와인제조단계에 신기술을 도입하여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품질향상만이 칠레산 와인이 국제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을 방안일 것이다. 남아프리카는 전체 재배면적의 60%를 백포도주용 포도를 재배해 왔으나, 점차적으로 고품질 적포도주용 품종의 재배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뉴질랜드의 재배면적은 고품종을 중심으로 거의 3배나 증가하여 2004년에 18,100ha에 달했다. 특히, sauvignon blanc이 전체 재배면적의 30%가량을 차지하며 2004년 총생산량의 42%를 차지하였다. 2003년에 166,000톤으로 최고 생산량을 기록하였으나 그 가격은 큰 변동없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호주나 미국과는 달리 뉴질랜드는 특유의 기후조건으로 국제시장에서 틈새시장을 공략하여 중장기적으로 재배면적은 계속하여 증가할 전망이다.

전통적인 와인 생산국인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은 2004년 세계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하였다. 2004/05년의 이들 국가의 와인 생산은 프랑스가 23%, 이탈리아가 6%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스페인은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프랑스에서의 생산 증가는 유럽연합내 재고량의 증가로 나타나 재배농가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재고량의 증가현상으로 유럽공동체 위원회는 1999년에 다수확 저품종을 개량화하는데 45,000만유로를 지원한 이래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오고 있다. 이 기금은 유럽연합내 최대 일반 와인 생산국인 스페인에 14,500만 유로를 지원하는 등 유럽연합 25개국을 대상으로 한다. 스페인에 이어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기금 지원을 받고 있다. 최근 들어 유럽연합내에서도 키프로스, 체코, 헝가리, 말타, 슬로바키아 등을 중심으로 유럽연합의 보조정책과 투자증가 정책에 힘입어 그 생산지역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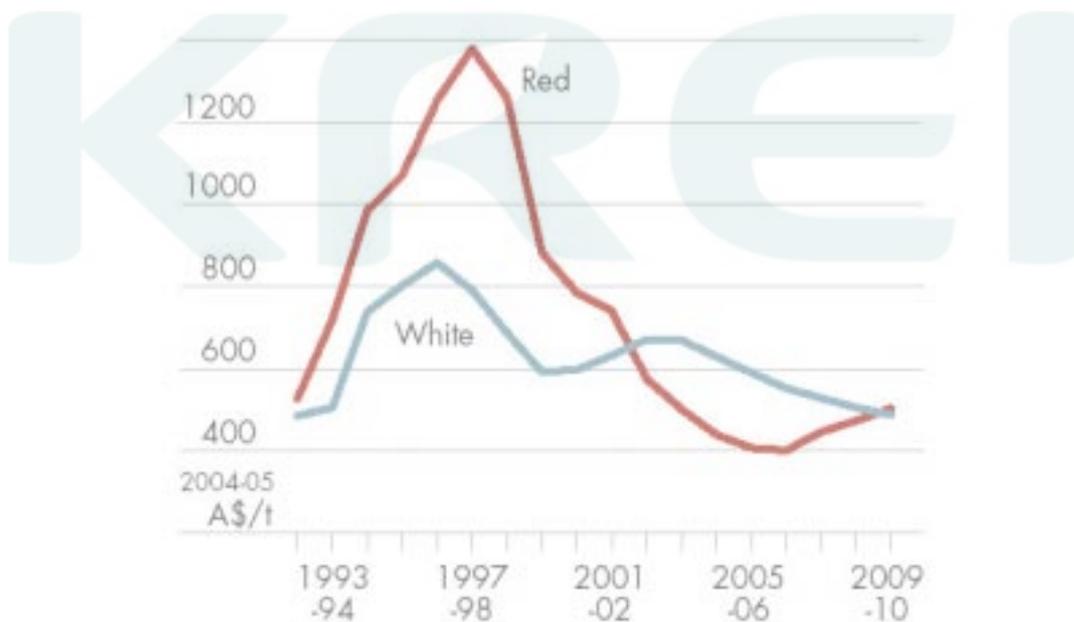
중장기적으로 신흥 생산국들을 중심으로 재배면적을 증가하여, 유럽연합의 고품질 와인 생산으로의 전환으로 인해 전반적인 포도생산량의 감소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국제 와인 생산은 점차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전반적인 와인 공급은 유럽의 와인 재고량 수준에 크게 달려있다. 2004년에 프랑스의 초과 공급량이 20,000만 리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초과공급의 여파로 중장기적으로 저품질 와인의 공급은 계속하여 감소할 전망이다. 이러한 공급 감소는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재배면적 축소와 생산농가들의 고품질의 와인 생산에 따른 생산량 감소에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호주, 칠레,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그리고 남아프리카는 중장기적으로 재배면적을 계속하여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지난 2년간 감소하던 재배면적이 현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도시화와 수자원 부족으로 인해 캘리포니아지역에서의 재배면적 확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09/10년까지 적포도주용 품종재배가 증가할 전망이다.

5. 호주산 와인 및 포도가격 전망

단기적으로 수출 하락과 생산량 증가로 인해 와인용 포도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호주산 적포도주용 포도가격은 13% 하락한 톤당 439달러(호주)가 될 전망이나 중장기적으로는 공급량이 부족하고 수요 증가로 인해 회복될 전망이다.

그림 3 호주산 와인용 포도가격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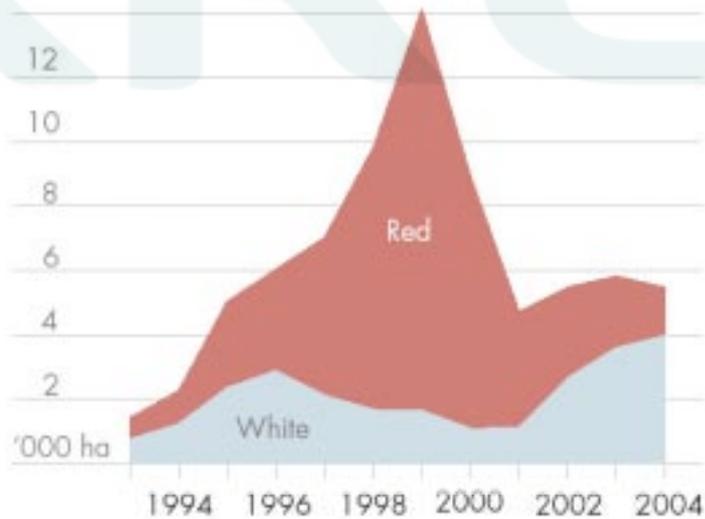
자료: ABARE

2004/05년 호주산 백포도주용 포도 가격은 2001년 이후 처음으로 하락하여 평균 6% 하락한 톤당 629달러(호주) 수준이 될 전망이다. 2009/10년까지 적포도주와 백포도주용 포도가격은 점차적으로 와인산업이 성숙되고 포도 생산이 안정화되면서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6. 호주의 와인 생산 전망

호주의 와인 생산지역은 계절별로 기후 조건이 매우 다양하다. 남동부지역은 겨울 강수량이 평균치를 웃돌았고 내륙지역의 겨울은 건조하고 온화하였다. 초봄의 덥고 건조한 기후는 생산량의 감소를 불러오지만, 늦은 봄의 강수량은 수확량 증대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1월부터 온화한 여름이 시작되어 와인 제조용 포도의 생산량은 2003/04년에 비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2004/05년의 생산량은 전년대비 5% 증가한 15만 3천ha에서 187만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4 호주의 와인용 포도 재배면적



자료: ABARE

2003/04년의 신규 재배면적은 전년대비 6% 감소하였는데, 이는 고품종을 중심으로 기대 수익의 하락에 따른 결과였다. 그러나 향후 5년 동안 재배면적은 증가하여 2009/10년까지 약 15% 상승한 17만 6천ha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러한 재배면적의 증가는 백포도주용 포도 생산의 증가에 기인할 것으로 보이는데, 고품질 백포도주용 포도가 약 27% 증가하고 고품질 적포도주용 포도의 재배면적이 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 호주의 와인용 포도 생산 및 수출 전망

	단위	2002 /03	2003 /04	2004 /05	2005 /06	2006 /07	2007 /08	2008 /09	2009 /10
재배면적	천ha	140	146	153	159	163	167	171	176
생 산	kt								
적포도주		804	1,093	1,050	1,039	1,058	1,077	1,096	1,115
백포도주		519	683	727	744	783	821	859	897
다목적용		88	119	95	95	93	84	82	82
계		1,411	1,895	1,872	1,879	1,933	1,982	2,037	2,095
수 출									
물 량	ML	508	581	679	778	880	980	1,082	1,181
가 격	A\$m								
명 목		2,386	2,545	2,791	3,082	3,409	3,826	4,274	4,811
실 질		2,502	2,606	2,791	3,013	3,251	3,560	3,879	4,260
평균가격	A\$/t								
백포도		655	669	629	603	579	568	556	551
실 질		687	685	629	590	552	528	505	488
적포도		562	501	439	417	421	480	521	568
실 질		589	513	439	407	401	446	473	503

주: 1. 실질가격은 2004/05년 호주 달러임.

2. 2004/05년은 추정치, 2005-10년은 전망치임.

자료: ABARE

재배면적의 증가에 따라 2009/10년까지 와인용 포도의 생산도 12% 가량 증가한 210만톤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백포도주용 포도 생산량이 23%나

증가하여 90만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나 적포도주용 포도의 생산량은 그 증가속도가 완만하여 전망기간 동안 약 5% 증가한 102만톤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09/10년까지 온화한 내륙지역에서의 재배면적의 증가(14%)로 인해 시원한 기후지역에서의 와인용 포도 생산량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2009/10년의 온화한 기후 지역에서의 고품종 적포도의 생산은 2004/05년에 비해 7% 증가한 54만톤 수준으로 전망되어 시원한 기후지역에서의 생산량 보다 3% 높은 수준이다.

7. 와인 판매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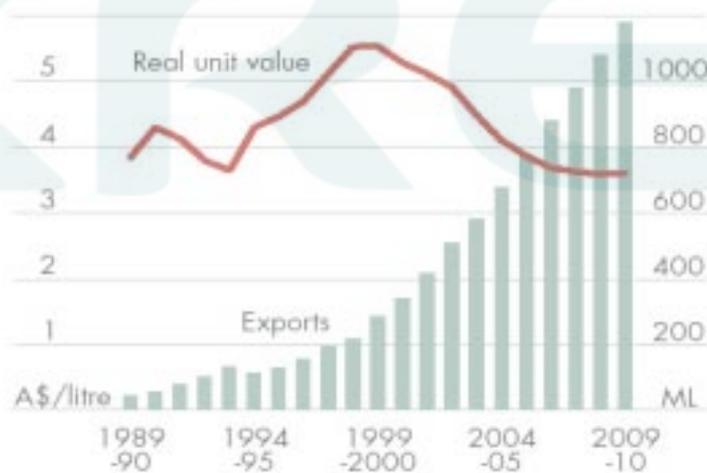
2003/04년의 호주산 와인의 연간 판매량은 10억리터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이 중 국내 판매로 4억 1,700만리터가, 수출로 5억 8,100만리터가 판매되었다. 특히 식탁용 포도주의 판매가 전체 판매량의 92%에 이르렀다. 호주의 와인용 포도 생산량이 크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판매 성장률은 연간 3~4% 증가에 그쳤다. 이는 호주산 와인의 판매의 대부분이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2003/04년의 수출은 물량기준으로 14% 증가하였다. 전망기간 동안 호주산 식탁용 와인에 대한 소비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8/09년까지 총 판매량은 2% 감소한 5억 리터를 조금 밑돌 것으로 전망되나 향후 점진적인 소비 증가를 가정할 경우 일인당 소비량은 연간 23리터 수준이 될 전망이다.

2003/04년의 호주의 와인 수입량은 1,900만리터로 국내 소비의 4.5%에 해당되는 양이며, 가격기준으로는 전년대비 9.5% 증가한 1억 5,200만달러 수준이었다. 호주산 와인 수출은 2003/04년에 5억 8,100만리터를 기록하였다. 적포도주의 수출이 물량기준 18% 증가하여 수출을 주도하였다. 2004/05년의 수출은 17% 증가한 6억 7,900만리터, 28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호주산 와인의 주요 시장 가운데 뉴질랜드를 제외한 영국, 미국, 캐나다, 독일에서 단위당 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2003/04년 뉴질랜드로의 수출 단위당 가격은 20% 가량 증가한 리터당 3.63달러로, 이는 저품질의 와인 수출이 17% 감소한데 기인한다.

중장기적으로 호주산 와인의 수출은 고품질 와인에 대한 소비 증가에 따라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전망이다. 2009/10년까지 호주산 와인의 수출은 12억리터, 약 43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같은 기간에 미국이 영국을 제치고 호주산 와인의 제1 수입국이 될 전망이다.

그림 5 호주산 와인 수출 전망



자료: ABARE

자료: ABARE, Wine Outlook to 2009-10 (2005. 3)
 (장재봉 jbchang@krei.re.kr 02-3299-4293 한국농촌경제연구원)